

2022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메시지 9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성경: 고전 8:1 하, 12:31 하, 13:1, 4-8, 13, 14:1, 3, 4 하, 요 21:15-17, 계 3:7-22

I.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사랑이어야 한다 — 고전 12:31 하, 13:4-8, 13.

- A.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엮몰되어 떠밀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분명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하고 우리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극도로 사랑하게 한다 — 고후 5:14.
- B.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 — 유 19-21, 고후 5:14, 벧전 1:22, 요일 3:14-16, 4:7-21.
- C.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려면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사랑스러움, 즐거움, 유쾌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께 여쭙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점검받는 것이다 — 시 27:4.
- D.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 하, 13:1, 4-8, 13.
 - 1. 바울이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묘사한 사랑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고전 13:4-8 상). 더 나아가 사랑이 그 영의 열매라는 사실은 사랑의 실질이 틀림없이 그 영임을 가리킨다(갈 5:22).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생명이 없이 소리만 내는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과 같게 된다(고전 13:1, 14:1, 3, 4 하, 12, 31, 고후 3:6).
 - 2.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처럼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마 5:43-48).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가장 먼저 구원하신 사람은 신사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 강도였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마 27:38, 눅 23:42-43).
 - 3. 사랑의 법인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며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이다 — 롬 8:2, 갈 6:2-3, 요 21:15-17, 눅 15:3-7.
 - 4.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이다(고전 15:58, 살전 1:3).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행 20:35)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준다'(살전 5:14). '연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롬 14:1, 15:1).
- E.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메시지들을 듣고 단지 지식만을 얻어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 고전 8:1 하, 비교 고후 3:6.

II.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의 현재 진리는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전환하는 것은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가기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오직 회복된 교회, 곧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로 상징된 형제 사랑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 — 계 1:1-3, 3:7-13, 영한 동번 찬송가 880 장).

- A.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계 3:7-13)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이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신부가 준비되며 새 예루살렘이 완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 비록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리고 떠났지만(딤후 1:15), 유일하게 한 교회만 주님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이다. 주님은 그들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귀히 여기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건강한 가르침의 말씀, 곧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계 3:8, 딤후 1:3-4, 6:3).
 2.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읊조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엡 6:17-18, 시 119:11, 15)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다'(눅 12:2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손을 드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을 가리킨다(시 119:48, 느 8:5-6).
 3. 이기는 이들이 성전에서 기둥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서 기둥들일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 안으로 건축되시어 그들을 살아 있는 보석들로 만드시고, 그들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돌기둥들이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합병되어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거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 — 계 3:12 상, 21:22, 3, 시 90:1, 요 14:23, 비교 왕상 7:17.
 4.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이들 위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 이 모두가 이기는 이들 안으로 일해 넣어져서, 그들에게 삼일 하나님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지고 그들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것을 가리킨다 — 계 3:12 하, 22:4 하.
- B.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 안에 내주하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사람의 생활 안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이다 — 엡 3:8, 고후 4:7.
1. 이사야서 22 장에서 하나님은 왕궁의 청지기였던 썸나를 해고하시고(15-19 절) 엘리아김으로 대체하셨다. 엘리아김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 곧 어깨에 하나님의 집의 열쇠가 놓인 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사 22:20-25, 계 3:7-8).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 보물 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풍성이 있다(살전 5:16-19, 요일 1:7, 9, 비교 겔 1:22, 26).
 - a. 참된 교회생활은 모든 성도가 해고되고 그리스도로 대체됨으로써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모두 썸나로서 참엘리아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체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인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신다 — 골 3:10-11, 고전 4:1, 벧전 4:10.
 - b.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합하시어 우리와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끝났다.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를 통하여 사심으로써 우리를 대체하신다 — 롬 6:6, 갈 2:20, 빌 1:19-21 상, 롬 8:16, 고전 6:17.
 2.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회복의 확산을 위한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여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지닌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되게 하신다 — 계 2:17, 3:12, 비교 21:22.
 - a.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기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나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은 기둥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나의 새 이름'은 기둥이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 기둥인 이기는 이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새로운 체험적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된다 — 계 3:12.

- b. 새 예루살렘은 새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이다. 새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 신랑의 증가인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 요 3:29-30, 계 21:9-10.
- c.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 롬 8:2, 눅 18:27, 비교 창 28:12-19, 요 1:51.
- C.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 유력하므로 그들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으로 보양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한다(벧전 5:2, 엡 4:11, 5:29, 행 20:28).
 - 1. 교회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며(요일 4:7-8, 요이 5-6, 요 15:12, 17, 계 3:7, 엡 5:2, 비교 유 12 상),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 2.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하나라는 참된 터 위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형제를 사랑한다 — 계 3:7 상, 비교 2:4, 7, 유 20-21, 고후 5:14, 요 12:3, 눅 7:47, 요일 3:14-16, 시 133 편.
 - 3.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계 3:8).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은 그들을 이끌어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귀한 인격을 참되게 감상하고 사랑하며 누리게 한다(고후 11:2-3).
 - 4.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승리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에 수고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과 수고는 주님과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 요 21:15-17.
- D.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라오디게아, 곧 타락하고 비뚤어진 빌라델비아의 길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 계 3:14-22.
 - 1. 라오디게아는 여전히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이전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현재의 임재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 출 33:14, 고후 2:10.
 - 2.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재에 있어서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아무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이전의 자신의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린다. 이전에 그것은 빌라델비아였지만, 지금은 미지근함과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라오디게아이다 — 계 3:15-17.
 - 3.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대가를 지불하여 금과 흰옷과 안약이신 삼일 하나님을 더욱 얻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인도하는 이기는 이로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을 수 있다 — 계 3:18, 21.